

올해 가장 책을 많이 펴낸 사람들

김윤식 · 이청준 · 한승원씨 등 열정적인 저술·집필 활동이 열매 맺어

불황 속에서도 97년 출판계에는 다양한 저작이 출간되었다. 올해 활발한 저술활동을 보인 학자들은 문학·역사·민속학·사회학·문화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저작을 내놓았으며 학계를 넘나드는 연구결실도 보였다. 문학쪽에서도 중견작가와 신진작가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이 돋보였다.

열정적인 저술가들

올해에 가장 많은 저작을 펴낸 사람으로는 김윤식 교수와 강준만 교수가 꼽힌다. 7권의 저작을 펴낸 김교수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정열적인 글쓰기로 저력을 과시했고, 1인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는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도 올해 《인물과 사상》 1~4권과 《레드 콤플렉스》 《다시 문제는 언론 플레이다》 등 6권의 저서를 펴냈다.

강교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안식년을 얻은 탓에 좀더 집필에 매진할 여력이 있었다. 그의 저력은 사생활을 포기한 단출한 일과에서 나온다.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의 일관된 주제는 언론(말길)이다.

“언로를 통한 문제를 거론하다보니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간 너무 미시적인 주제를 다룬 것 같아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그는 자신의 학문연구의 근간은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그는 지금 《한국 대중문화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식 교수와 함께 서울대 조동일 교수의 저작발표도 활발했다.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지식산업사)에 이어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을 펴낸 조교수는 연극, 서사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명이 서구에 의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4월에 출간했던 《인문학문의 사명》(서울대출판부)은 학문의 위기진단과 아울러 한국학문과 세계학문 등을 다룬 책이다. 김영민 교수(한일신학대)의 책에 대한 비판과 반박으로, 그 쟁점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도 올해 《새로운 글

올해 가장 많은 저작물을

펴낸 이로 김윤식·강준만교수가

꼽힌다. 정열적인 저술의

결실은 책읽고 쓰는 세월이

보상한 값진 결과다.

문단에서는 이청준·한승원 등

중진작가와 성석제·김이태·

강규 등 90년대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쓰기와 문학의 진정성》(문학과지성사)과 산문집 《생각의 안과 밖》(문이당)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문학과지성사)를 묶어 냈으며, 서울대 영문과 김성곤 교수도 올해 3권의 책을 펴냈다. 《헐리웃 20세기 문화의 거울》(문학과지성사) 《미국 현대문학》(민음사) 《문학과 영화》(민음사) 등 문학과 영화를 비교연구해 온 그간의 저술을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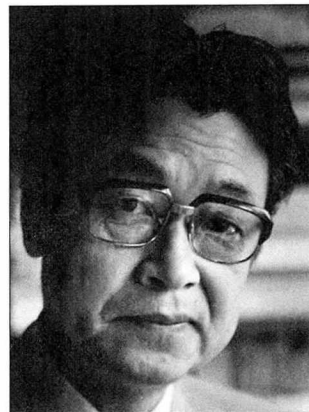
인류학과 민속학계의 저술도 활발했다. 서울대 인류학과 이광규 교수는 《한국문화의 심리인류학》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 《제외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등 4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2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민속학자 주강현씨도 지난해에 이어 왕성한 저작 활동을 보였다. 《주강현의 우리문화기행》(해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2》 등과 함께 두레연구사와 연구방법론을 기술한 《한국의 두레 1》 《한국의 두레 2》도 올해 펴냈다. 심우성씨의 《우리나라 민속놀이》와 《조선시대 공예개관》은 일관되게 연구해온 집적물이다.

역사학계에서도 학자들의 무르익은 저작 출간이 돋보인다. 한영우 교수와 도진순 교수 저작이 그것. 한영우 교수는 《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와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지식산업사) 《조선시대 신분사연구》(집문당)를 펴내 후학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며, 창원대 도진순 교수(역사학)는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출판부)와 《백범일지》(돌베개)를 펴냈다. 분단과 통일, 민족주

“글쓰는 것은 오랜 습관이며 삶의 리듬”

올해 최다저작물 펴낸 김윤식 교수



“제가 책을 많이 펴내는 것은 단지 책읽고 쓰기로 세월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살지만, 저는 사회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책을 쓰는 편이지요.”

김윤식교수는 올해 학술기행과 문학기행기인 《천지 가는 길》(솔) 《동양정신과의 감각적 만남》(고려대학교출판부)을 비롯해서 90년대 작가 작품비평을 모은 《소설 현장비평》(문학사상사)과 김동리의 삶과 문학을 담은 평전 《사반과의 대화》(민음사), 현대문학사 100년을 담은 《김윤식의 현대문학사 탐구》(문학사상사) 《발견으로서의 한국 현대문학사》(서울대출판부), 《김윤식 교수의 소설특강 1》(한국문학사) 등 7권을 펴냈다.

글쓰고 연구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자 삶의 리듬이라는 김교수는 새해에는 평론가

‘백철’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백철이라는 비평가는 자기 이론 없이 늘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한 지식인입니다. 이점이 바로 연구의욕을 불러일으켰지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명하는 그는 열정이 넘친다. (마정미)

“맑은 공기 속에 글쓰며, 책 읽으며”

고향에서 집필에 몰두하는 소설가 한승원씨



장흥 울산마을에 낙향한 한승원씨는 새벽 4시 30분쯤 일어나 두시간여 글을 쓰고 7시쯤에는 산에 오른다. 식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10시 무렵에서부터 일을 한다. 오후 2시부터 3~4시까지는 책이나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하며 때때로 오후에는 바다에 나가 거닌다.

“공기 맑은 곳에서 일을 하니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작업들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올 한해 3권의 책을 냈다. 《해산가는 길》과 《별아기의 모래꿈》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작품이다. “《해산가는 길》을 쓰고 보니 다음 책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책은 청년기의 절망, 방황, 사랑, 열정을 담

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보듬고, 씩씩하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그리자면 글도 훨씬 치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화도 한편 구상중이고, 1천매 분량의 전자 장편소설도 계획중이다. ‘고향을 기리는 길’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한다. (마정미)

산에 오르면

어렵고 답답한 매일수룩
 산은 더욱 반갑게 수리를 맞아 줍니다.
 넉넉한 침묵의 미소로
 세속의 별것 아닌 번뇌쯤
 한적한 바위 틈, 풀숲 사이에
 묻어 두고 가라고 이릅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학회지 · 교지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의 등의 주제를 진지하게 다룬 이 책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현대사와 백범의 원전에 대한 철저한 복원을 시도하고 있어 값지다.

아울러 건축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계를 열어 준 김석철씨(아키반 대표)의 활동도 돋보였다.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해냄)과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사)은 건축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무시켰고 해박한 지식과 문장력으로 독자를 유인했다.

또한 학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정치인 김대중씨도 올해의 다작 저자로 꼽힌다. 정치와 경제문제를 다룬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산하) 《대중참여경제론》(산하)에서부터 여성문제와 문화를 다룬 《내가 사랑한 여성》(에디터) 《이경규에서 스피버그까지》(조선일보사)같은 비평서를 냈으며, 최근에 출간된 자전기 《나의 삶 나의길》(산하)까지 5권의 책을 펴냈다.

중진과 신진 작가들의 활동 돋보여

문학 분야에서는 지난해 활동이 뜸했던 중진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또한 90년대 작가로 불리는 신진작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했다.

판소리와 서도민요에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이청준씨는 《테마가 있는 판소리 소설 시리즈》인 《놀부는 선생이 많다》 《토끼야, 용궁에 가자》 《심청이는 뱀이 든든하다》 《옹고집이 기가 막혀》 《춘향이를 누가 말려》(파랑새)와 《눈길》(문학과학지성사) 《한국 전래 동화 1, 2》(파랑새)를 펴냈다. 열림원의 자회사인 파랑새에서 펴낸 이 시리즈는 흥부가·수궁가·심청가·춘향가·적벽가를 소설화한 작업.

낙향하여 집필에 매진하는 한승원씨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펴고 있다. 장편 《연꽃바다》(세계사) 《해산가는 길》(문학동네)과 창작동화 《별아기의 바다꿈》(한양출판) 등이 올해 출간된 작품이다. 다작 시인인 고은씨도 올해 3권의 시집을 냈다. 딸 차령이를 보며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차령이 노래》(동쪽나라)와 민주화 후 우리나라 상황을 담은 《어느 기념비》(민음사), 산문집 《살아있는 광장에 서서》(신원문화사)를 펴냈다.

젊은 작가들의 활동도 이에 못지 않다. 강

규와 김이태씨, 그리고 신인 아닌 신인 성석제씨가 활발한 한해를 보냈다. 장편 《베두윈 찾집》 공동작품집 《꿈꾸는 죽음》 작품집 《사랑이 나를 만질 때》(문학동네)를 펴낸 강규씨는 “데뷔 후 작품활동이 부진했다. 작가정신이 투철하지 못했던 탓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상반기중 중단편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의욕을 보인다.

독특한 이력을 지닌 작가 김이태씨 또한 평단의 주목 속에 작품집 《케도를 이탈한 별》(민음사)과 장편 《전함 큐브릭》(고려원) 《슬픈 가면무도회》(해냄)을 펴냈다.

올해의 다작가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성석제씨는 연평소설집 《재미나는 인생》(강)을 필두로 시집 《검은 암소의 천국》(민음사) 작품집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민음사)를 펴내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집필하기보다 마감 이 닳치면 몰입해서 쓰는 편. 전업작가 생활의 불규칙함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성석제씨는 내년엔 장편 2권과 산문집 1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진했던 중단편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

시리즈물과 대학출판부 약진

이렇듯 97년은 인문분야의 활발한 저술활동과 다양한 저작 출간, 활발한 작품발표가 이루어진 한해였다.

교재와 컴퓨터 관련서를 제외하고 단행본만을 출간하는 출판사로는 민음사가 가장 많은 책을 펴냈는데 자회사인 황금가지, 사이언스북스의 책을 제외하고 대략 150여종을 펴냈다. 출판사마다 시리즈와 총서로 호조를 보였는데 시공사의 《디스커버리 총서》와 솔출판사의 《나랏말씀》 《국역총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푸른숲의 푸른역사와, 문학동네의 북하우스, 민음사의 황금가지·사이언스북스, 한길사의 리브로처럼 올해 자회사를 설립, 하나둘 성과물을 낸 것도 특징.

대학출판부의 출간도 활발한 한해였다. 전집과 시리즈 출간이 돋보이는데, 건국대의 《문학의 이해와 감상》시리즈, 한국외국어대 출판부의 《세계문학총서》시리즈, 고대출판부의 《한국고전문학전집》도 지속적인 연구축적에 기여하고 있다. — 마정미 기자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